



300-107. 신문조서(崔元澤 외 29명 치안유지법 위반) 7책 중 6

■ 총독부 예심판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崔元澤 등 30명에 대하여 작성한 피고인 신문조서와 예심종결 이전의 검사의 의견서, 기록 및 증거물 반환, 예심종결 결정서, 소송기록 송부서 및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등이 편철 수록

- 당시에는 법정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형무소에 출장하여 신문하였으며, 종결에 앞서 검사의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 문헌을 기술함에 있어 편철 순서대로 목록을 나열하고, 끝으로 예심종결 결정의 주문과 이유를 개략적으로 적는다.
-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崔元澤 4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19일 100쪽
安基成 5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0일 92쪽
安基成 6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3일 112쪽
李周和 4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4일 54쪽
玄七鍾 4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20쪽
金素然 3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40쪽
金奎極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12쪽
林啓學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14쪽
朴載廈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16쪽
張時澈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22쪽
河利煥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5일 12쪽
朴一茂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韓長順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4쪽
李英根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2쪽
韓一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車鍾洙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6쪽
宋山雨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2쪽
金洪桂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方明俊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0쪽
林東元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方薰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6쪽
李柱鳳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鄭聖基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鄭寅哲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6쪽
黃一甫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金知宗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0쪽
李鍾繪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6쪽
南秉錫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陳宗琬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6쪽
朴鎮旭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8쪽
金正煥 2차 피고인 신문조서, 1928년 4월 26일 12쪽
예심종결에 대한 검사의 의견서, 1928년 4월 27일



기록 및 증거물 반환의 건, 1928년 4월 30일

예심종결결정서, 朴鎮旭은 면소결정이고, 그 밖에 29명은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 (1928년 4월 30일)

소송기록 송부서(1928년 5월 5일)

소송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1928년 5월 7일)

- 한편 피고인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崔元澤

金在鳳·金科全·陳秉基·俞鎮熙·朱鍾建·金尚洙·尹德炳·洪惠裕·金燦·獨孤侄·曹奉岩·宋奉瑀·趙東祐 등과 같이 1925년 4월 17일 오후 1시경 경성부 黃金町 1丁目 中國料理店 雅敍園에서 회합하고, 조선을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조선에서 私有財產制度를 부인하는 공산제도를 실현할 목적으로 조선공산당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2월 말경 중국 上海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上海部 책임비서로 있는 金燦·曹奉岩 등과 회합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만주지부 창설의 임무를 떠고 동년 4월 말경 북만주 吉林省 葦沙縣 一面坡에 체류하면서 金哲勳·金河球·尹滋英 등에게 종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만주총국을 조직하고, 曹奉岩은 책임비서에, 尹滋英은 선전부장에, 崔元澤은 조직부장에 각각 취임하였다.

만주를 東滿, 南滿, 北滿의 3區로 나누고, 만주총국의 지부로 하여 각 區域局으로 삼아 목적달성을 위해 활약한 바 있다.

2. 李周和·金素然·林啓學·蔡世振·朴斗煥·李淳·金福萬·林珉鎬

만주총국의 당원인 韓應甲·全龍洛과 같이 1926년 10월 28일 吉林省 延吉縣 勇智鄉 龍井村에서 회합하고 東滿區域局을 조직하여 李周和·金素然·林啓學 등 8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비서부, 선전부, 조직부, 검열부, 표면부를 두어 全龍洛은 책임비서, 李淳은 선전부장, 蔡世振은 검열부원, 李周和·金素然은 표면부원이 되어 1927년 3월 20일까지 13개의 세포단체를 설치하는 등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3. 玄七鍾·安基成

1927년 3월 28일경 東滿區域局의 책임비서 및 선전부장이 되어 당원을 모집하고 延吉縣 尚義鄉·銅佛寺·守信鄉·二道溝·頭道溝 등에 세포를 두고 당원을 배치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4. 韓一·張時澈·黃一甫·朴載夏·李柱鳳·金圭極·方明俊·鄭聖基·金洪桂·河利煥·韓長順·林東元·鄭寅哲·朴一茂·李英根·宋山雨·車鍾洙·方薰 등도 입당하여 각 세포단체에 소속되어 각기 목적달성을 위해 진력하였다.

5. 李鍾繪·陳宗琬·南秉錫 등도 東滿區域局에 가입하였다.

6. 金知宗은 1927년 7월 중순경 입당하여 지부의 선전부장에 취임하였다.

7. 金正煥은 1927년 11월 10일 입당하여 집행위원에 취임하였다.

金知宗은 朴憲永·權五高·金丹治·金燦·曹奉岩·林元根·林亨寬·金尚洙·曹利煥·鄭敬昌·安相薰·陳秉基·朴吉陽·洪增植·申哲洙·張順明 등과 같이 1925년 4월 18일 오후 7시경 경성부 薫井洞 朴憲永 家에서 회합하고, 같은 목적으로 高麗共產青年會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선전부의 일을 하다 1926년 3월경 검거를 우려하여 上海로 도피하였다.

方薰·韓長順·韓一·張時澈 등도 高麗共產青年會 滿洲秘書部에 입회하였다.



金正煥은 1926년 1월 15일경 고려공산청년회 만주비서부에 입회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黃一甫는 1921년 7월 2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大正8年 制令 第7號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